

서울반도체, 영업실적 호조 지속...

매출액 22.5% 증가에 영업이익 2.8배 급증 ... 2014년 주문폭주 예상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의 주가가 2/4분기 영업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코스닥시장에서 8월14일 9시15분 3.08% 오른 3만8450원에 거래됐고 현대증권은 서울반도체의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서울반도체는 2/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2.5% 증가한 2655억원, 영업이익은 285.1% 급증한 29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월13일 공시했다.

조명 매출액 증가의 영향으로 2/4분기 영업이익률이 11.0%를 기록해 2010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2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백종석 현대증권 연구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관련 수요기업은 1500개 정도로 오스람, 필립스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부터 영세기업까지 다양하다”며 “2014년부터 LED조명 시장이 열리면 수요처들의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14>